

“5G 가입자 늘려라” 이통사, 중저가 스마트폰 선봬

SKT·KT·LGU+ 출고가 40만원대 출시 실속 요금·기기 찾는 소비자 선택 폭 다양

이동통신 3사가 왔다튀 중저가 전용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5G 통신 가입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기기값과 비싼 요금제 등에 부담을 느껴 실속형 스마트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5G 스마트폰 라인업을 다양화시키는 동시에 고객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혀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출고가 44만9,000원의 저렴한 가성비 5G 스마트폰 갤럭시와이드5를 단독 출시했다. ▲6.6인치 FHD+화면 ▲6,400만 화소 카메라 ▲5,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15W 고속 충전 기능 ▲삼성페이·지문인식 기능 등을 갖춘 와이드5는 실속 있는 5G 스마트폰을 찾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갤럭시와이드5 출시를 기념, 오는 30일까지 기기를 개통하는 모든 고객에게 윈스토어북스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3,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 5일까지 갤럭시와이드5 개통과 함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체험권도 제공한다.

KT 역시 지난 5월 출고가 39만9,300원의 갤럭시 점프를 단독 출시했다.

갤럭시 점프는 ▲지문이 묻지 않는 매트한 무광 디자인 ▲6.5인치 대화면 ▲128GB 메모리 ▲5,000mAh 배터리 ▲삼성페이 ▲측면 지문인식 등이 특징으로, 색상은 어썸 블랙, 어썸 화이트, 어썸 레드 등 3가지로 선택의 폭도 확장했다.



SK텔레콤 모델이 갤럭시와이드5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LG유플러스도 출고가 39만9,300원의 갤럭시 버디를 단독으로 선보였다.

깔끔한 후면 트리플카메라와 무광 마감 등의 디자인이 특징인 갤럭시 버디는 그레이, 화이트, 민트 등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6.6인치 대화면 ▲128GB

메모리 ▲5,000mAh 배터리 ▲삼성페이와 측면 버튼을 통한 지문인식 기능도 탑재됐다.

이와 더불어 LG유플러스는 갤럭시 버디를 온라인몰 유상을 통해 가입해 구매할 경우 유상용 쇼핑 쿠폰팩과 개통 사은품을



KT 모델들이 갤럭시 점프를 선보이고 있다. /KT제공

추가 증정한다. 쇼핑쿠폰팩은 네이버페이, 스마일캐시 등 총 8종 중 1종을 선택하면 24개월간 매월 최대 7,5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지역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3사의 중저가 전용 스마트폰 출시가 소비자들로 하여

금 5G의 장점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실속형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LG유플러스 모델이 개편된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네스트 허브’의 킥 제스처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손짓으로 음악 재생해보세요”

LGU+, ‘스마트홈 구글패키지’ 개편

LG유플러스는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U+스마트홈 구글 패키지’ (이하 구글패키지)의 기능과 콘텐츠를 대폭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글패키지는 인공지능(AI) 스피커 ‘구글 네스트 허브’에 대기음 무드 등, 가전제품 전원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멀티탭을 모은 서비스로, 이번 개편으로 인해 구글 네스트 허브에 ‘킥 제스처’ 기능이 추가돼 손짓만으로 콘텐츠 제어가 가능해졌다.

기기 앞에서 손바닥을 펼치면 음악이 재생되고, 한 번 더 같은 동작을 하

면 일시 정지 되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구글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한 수면센싱 기능도 향상돼 수면 중 호흡수, 기침, 코골이 습관 등을 추적하고 양질의 수면을 위한 팁을 제공한다.

U+프로야구 서비스도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제공된다.

서한서 구글 하드웨어 파트너십 상 무는 “LGU+와의 협력을 통해 구글의 글로벌 기술 역량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꾸준히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외국 업체들 LG전자 빈자리 노린다

구글·모토로라·HTC 등 국내시장 재진출 박차

“성능·가격 다양화 등 진전된 경쟁 유도될 것”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자 외국 기업들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복귀하는 등 5G의 대중화에 앞선 자리다툼에 동참하고 있다.

2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과 모토로라, HTC 등 외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국내 시장 재진출 준비를 서두르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5년 넥서스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모토로라와 HTC 또한 지난 2013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모토로라는 최근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한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모토 G50’ 모델의 전파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진출이 확실해졌다.

구글은 다음달 말 픽셀6 공개를 앞두고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업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어 픽셀6의 국내 정식 출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HTC도 스마트폰 영업과 사업 개발을 담당할 인력 채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100만원 미만의 중



한 사용자가 구글의 중저가 스마트폰 ‘픽셀5’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 제공

저가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지분을 넓힐 예정이다.

실제 모토로라의 모토G50은 해외에서 약 30만원에 팔리고 있으며, 구글의 지난해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인 픽셀5 또한 80만원의 출고가로 100만원을 밑돌았다. HTC 역시 5G를 중심으로 한 중저가 모델을 기반으로 관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빈자리가 생김에 따라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10%를 차지하던 LG전자가 철수함에 따라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공백이 발생한 것으

로 추산됐다. 삼성과 애플로 양분된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지 몰라도, 중저가 시장에서 LG전자가 차지해온 영역을 공략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A를 앞세워 이통3사 또한 중저가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이들의 아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외국 기업 유입을 통해 스마트폰의 성능과 가격이 다양해지는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SKT, 군장병 요금할인 내달부터 5G까지 확대

현역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20% 요금할인 혜택’이 오는 10월부터 5세대 이동통신(5G)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혜택은 7월말 기준 5G 가입자가 1,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5G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2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군병사들을 대상으로 요금제와 상관없이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10월 초 해당 프로그램 출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관련 서비스 출시 소식을 대외에 공지할 예정이다. 할인 대상에는 3G와 5G 요금제 사용자도 포함된다.

젊은 층인 군장병 상당수가 3G 요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실상 할인 적용 대상은 5G 요금제 사용자로 확대하는 셈이다.

현재 S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는 4세대 이동통신(4G)인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사들에게만 할인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모바일 상품 대부분은 5G 서비스 사용자를 중심으로 짜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G 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젊은 층, 특히 군장병이 정착 입대 후에 금액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연철뉴스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